

## 농촌 거주 비농업 종사 가족의 식습관과 건강 행동

정금주·조숙자·조영숙\*·박동연\*\*·원향례\*\*\*·이승교\*\*\*\*  
서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농촌자원개발연구소\*·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Non-farming family's Food Habits and Health Behavior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living in Rural, Korea

Chung, Kum Ju · Cho, Sook Ja · Cho, Young Sook\* · Park, Dong Yean\*\* · Won, Hyang Rye\*\*\* · Rhie, Seung Gyo\*\*\*\*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won University, Cheongju, Korea

National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Suwon,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Korea\*\*\*\*

#### ABSTRACT

In rural area, as the source of family income is related with the agriculture works, the living condition of non-farming family used to be lower except some family groups with a little higher income. In order to find out the improvement in rural life, data about the health behavior and diet habits of non-farming family were observed. This study evaluated the health behavior and diet habits of non-farming familie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the farming families in rural area. The survey was made by trained interviewers and a total of 1,870 subjects from 9 provinces were questioned to collect the data through sampling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The non-farming families were 29.6% of the total and they were with no spouse(38%), low number of family members(2.86), and aged husband(66.8 years) or wife(58.5 years). 83.1% of the non farming families were having breakfast however, 95.1% of the farming families were doing it. And the number of side dishes in non farming families was low(1-2 kinds: 17.7%). Out of non farming families, 47.3% took no nutritional supplements and out of the farming families it was 40.8%. With regard to having snacks, 22% of non-farmers had snacks daily and it was greater than that of farmers(16.6%). But the ratio of non-snack taking of the non-farmers(29.6%) was higher than that of farmers(24.5%). The sorts of snacks also varied and for farmers it used to be fruit and noodles and for non-farmers it was bread and milk. Instant foods were often selected by 35.6% of non-farmers. Dining out with a frequency of once per month was reported in 23.2% of

접수일: 2005년 10월 29일    채택일: 2005년 12월 1일

Corresponding Author: Rhie, Seung Gyo    Tel: 82-31-220-2239

E-mail: rhie@suwon.ac.kr

non-farming families, but 47.6% of them did not dine out at all. In case of food production for family consumption, small portion of non-farmers cultivated pepper(13.3%), Korean cabbage (16.2%), and sesame(6.2%) but almost all of the farmers cultivated such crops. However, non-farmers produced soybean sprouts(0.7%), soybean curd(0.2%), and eggs(7.2%)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fact that farmers produced soybean sprouts(9.7%), soybean curd (4.6%), and eggs(5.1%). Non-farmers stocked the fermented foods: Doenjang (57.8%), Kochujang (56.1%), Kanjang (53.6%), Kimchi (77.9%) and Jangajji (37.2%), and this ratios were smaller than those of farmers: Doenjang (93.6%), Kochujang (92.9%), Kanjang (87.9%), Kimchi (97.7%) and Jangajji (66.7%). As to health behavior of the subjects, non-farmers had less medical examinations and bathing than farmers did. Non-farmers and their wives used public bath facilities more often and it may be due to the low condition of bathing facilities. And the ratio of daily alcohol consumption was 15% and i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farmers. Most of the spouse of the farmers did not drink(78%), but the wives of the non-farmers were drinking more frequently. More farmers smoked than non-farmers and 45% of male farmers were smokers.

Key words: non-farming family, diet habits, health behavior, farming family, rural

## I. 서론

우리의 농촌지역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농촌문제는 작은 영농규모와 낮은 농가소득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의 빈곤가구의 74.6%가 농촌출신이고(박선옥 1992), 이들이 영세농에서 도시 빈곤층으로 전환되어 농촌에서의 빈곤가구는 농업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노인 가구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외곽 가족으로 이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조원식 1999; 이시연 2004).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가족은 농업소득을 생각할 수 없고 또 농외소득을 얻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된다. 농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와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김지은 2004; 하영선 2004).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생활만족도는 첫째 순위로서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을 들고 있는데(이장영 2002),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불균등 문제와 소득 불안정성으로 소득격차는 커지고 있으며(김성용 2004),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농업소득 향상에 국가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비농업종사가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형편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절

반이상인 노인끼리만 사는 저소득층으로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전경숙 2001), 질병으로 인하여 좌절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부분 질병상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정은옥 2005), 지속적인 건강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양상을 말하는 생활양식으로서 식생활은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 연령, 사회경제상, 등 인구학적 변수와 친구나 사회적 지지, 교육수준 등이 인지하는 건강에 영향을 미쳐 건강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의 식생활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영양 공급의 근원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식생활은 육류와 인스턴트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식생활의 변화가 있었다(정영일·이경미 2000; 이일하 1993).

현재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무엇보다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양식과 행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런 질환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 가능한 여지가 많으므로 질병발생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의 치유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촌거주 비농업 종사가족에 대하여 식습관과 건강행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전국 농촌지역(읍·면 단위)의 일반가구로서 노인 단독가구 등 1인가구를 포함하여, 전국 88개 시군 187개 행정 리 1870가구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가구주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기존의 구축된 현지조사요원 156명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일반특성(연령, 학력, 가족수), 식습관(아침식사 여부, 반찬수, 인스턴트식품섭취, 간식섭취, 종류), 식품생산(배추, 고추, 참깨, 콩나물, 두부, 계란), 식품저장(된장, 간장, 장아찌, 고추장, 김치, 메주), 가공식품(잼, 효소, 분말, 병조림, 술, 기타), 건강상태(건강진단빈도, 이환자여부) 목욕빈도와 시설, 음주흡연 여부와 빈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영역에서 식습관을 점수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침식사점수 4점, 반찬수 점수 4점, 인스턴트식품빈도 점수 3점, 간식 2점으로 하여 총 0점에서 14점까지 분포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따른 점수의 배분은 아침식사 점수의 경우 꼭 먹는다 4점, 가끔 먹는다 2점, 안 먹는다 0점으로 하였으며, 반찬 수 점수는 9종 이상 4점, 7-8종 3점, 5-6종 2점, 3-4종 1점, 1-2종 0점으로 하였다. 인스턴트식품 빈도를 점수로 한 경우, 전혀 안 먹음 3점, 잘 안먹음 3점, 보통임 2점, 자주 먹음 1점, 매우 자주 먹음 0점으로 하였고, 간식에 대한 권장식품별 점수는 과일 2점, 우유 2점, 나머지 탄수화물식품 1점으로 배분하였다.

2000년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그 가구의 가구주나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2. 결과분석

SAS(VER 8.2)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가족구분별 분포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보았고 Chi-square값으로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식습관점수는 평균과 편차를 구하고 t값으로 유의성을 점정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1. 비농업 종사 가족의 가족구성과 일반사항  
가족유형에 대하여 농업종사여부에 따른 각 구성요인별 분포를 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 종사 가족은 전체조사가족 1870 가구 중 554가구로서 29.6%이었으며 그 특성은 외곽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 비율이 38%로서 농업종사가족의 15.9%에 비교할 때 높았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족은 비농업종사 가족에서 45.8%이며 환자가 있는 비농업종사 가족은 11.2%로서 농업종사가족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족수를 보면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2.86명이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66.8세이며 부인의 연령은 58.5세로서 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많은 연령으로 구성되었다. 환자가 있을 경우 환자의 연령은 68.7세이며 평균 49.7개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종사가족과 비교할 때 환자의 연령이 높았으나 환자의 이환 개월 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형태에 따른 주부의 소득참여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비농업 종사가족은 가사일에 전념하는 비율이 54%로서 농업종사가족의 8.4%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부업을 하는 주부는 25.5%에 불과하여 농업종사가족의 농업참여비율이 79.3%임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여, 농촌이라 할지라도 농업이나 농외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Table 1.** Family characteristics of non-farmers comparing with farmers family

n(%)

Characteristics of non-farming family					
Family		Non-farming	Farming	Total	$\chi^2$
Elder's age	yes	253(45.8)	592(45.3)	845(45.4)	0.052ns
over 65	no	299(54.2)	716(54.7)	1015(54.6)	
Spouse	yes	342(62.0)	1100(84.1)	1442(77.5)	109.2***
	no	210(38.0)	208(15.9)	418(22.5)	
Patient	yes	62(11.2)	161(12.3)	223(12.0)	0.43ns
	no	490(88.8)	1147(87.7)	1637(88.0)	

Family number, age, and illness duration			
	Non-farming	Farming	t-value
Family number(n)	2.86 ± 0.07	3.06 ± 0.04	2.37ns
Age of Husband(yrs)	66.81 ± 1.03	64.09 ± 0.47	8.59**
Age of Wife(yrs)	58.49 ± 0.82	57.99 ± 0.39	13.44***
Age of patient(yrs)	68.67 ± 1.72	65.75 ± 1.05	7.61**
Duration of illness(mths)	49.73 ± 12.29	36.01 ± 5.74	1.46ns

\*\*\* p<0.001 \*\* p<0.01 \* p<0.05 ns : not significant

**Table 2.** The non-farming family's participant part time work rate of wife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Total	House work only	House + farm work	House + part-time work	Others	No-answer	$\chi^2$
Non-farming	552(100)	298(54.0)	22( 4.0)	141(25.5)	45(8.2)	46(8.3)	935.7
Farming	1308(100)	110( 8.4)	1037(79.3)	106( 8.1)	9(0.7)	46(3.5)	***
Total	1860(100)	408(21.9)	1059(56.9)	247(13.3)	54(2.9)	92(5.0)	

\*\*\*p<0.001

2. 비농업종사가족의 아침식사와 식생활관리

비농업 종사가족의 아침식사 섭취빈도를 보면 83.2%가 꼭 먹는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꼭 섭취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그러나 농업종사가족의 95.1%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아침식사에 대하여 도시보다 농촌에서, 특히 노인의 경우 꼭 먹거나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경향과 일치하였다(김정원·김초강 1997). 또한 부산지역노인에 대한 꼭 먹는다는 비율 90.9%와 비교할 때 비농업가족에서는 조금 낮은 비율이었다(정주애 등 1994). 그러나 경남도민에 대한 조사에서 아침식사 꼭 한다는 60.8%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정효숙 1998), 도시지역의 아침을 꼭 먹는 경우는

57.4%에 불과하여(남원계·임재은 1996) 농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식사를 꼭 먹는 경향을 보였다.

비농업 종사가족의 섭취하는 반찬수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찬수는 3-4종을 섭취하는 비율로서 56%이었다. 다음으로는 5-6종을 먹는 비율이 24.9%이었으나 1-2종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17.7%로서 높은 비율을 보여 균형식을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농업종사가족은 3-4종의 반찬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59.6%), 다음 순으로서 5-6종이 31.2%로서 비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여 균형식 측면에서 좀 나은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양소의 역할에 대한

**Table 3.** The breakfast eating states and numbers of side dishe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Breakfast eating					
	Total	Always	Sometimes	Never	$\chi^2$
Non-farming	554(100)	461(83.2)	64(11.6)	29(5.2)	81.27
Farming	1316(100)	251(95.1)	58( 4.4)	7(0.5)	***
Total	1870(100)	1712(91.6)	122( 6.5)	36(1.9)	

Numbers of side dishes							
	Total	1-2	3-4	5-6	7-8	Over 9	$\chi^2$
Non-farming	554(100)	98(17.7)	310(56.0)	138(24.9)	6(1.1)	2(0.4)	56.69
Farming	1316(100)	89( 6.8)	784(59.6)	411(31.2)	29(2.2)	3(0.2)	***
Total	1870(100)	186(10.0)	1095(58.6)	549(29.4)	35(1.9)	5(0.3)	

\*\*\*p<0.001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영양보충제를 복용하는 경향이 식생활의 한 형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양보충제란 일반적으로 일반식품보다 많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양보충제의 섭취는 영양이나 운동 건강염려나 영양 지식의 주관적 인지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김미경 1990)고 한다. 그러면 비농업종사 가족의 영양보충제 섭취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현재 섭취하고 있는 경우는 27.6%이며 과거에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6%이었다. 그러

나 전혀 섭취하지 않은 경우도 47.3%였다. 농업종사가족에서는 과거에 섭취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3.4%로 높아 전혀 섭취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40.8%로 비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였다. 노인의 조사에서 보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것을 선호하는 점(이영순 등 1998)을 볼 때 이는 경제적 여유와 관련성이 있어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제적 부족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영양보충제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Table 4) 주로 비타민 등 알약의 형태를 60.1%의 비농업종사가족이 먹었으며, 그다음은 식품으로서 건강

**Table 4.** The use of nutritional supplement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Use of nutritional supplements					
	Total	Present	Past	Never	$\chi^2$
Non-farming	552(100)	144(27.6)	147(26.6)	261(47.3)	11.19
Farming	1308(100)	338(25.5)	437(33.4)	533(40.8)	*
Total	1867(100)	484(25.9)	588(31.4)	795(42.5)	

The kinds of nutritional supplements					
	Total	Tablet <sup>a)</sup>	Foods <sup>b)</sup>	Others	$\chi^2$
Non-farming	143(100)	86(60.1)	50(35.0)	7(4.9)	7.77
Farming	338(100)	197(58.3)	128(37.9)	13(3.8)	ns
Total	481(100)	294(61.1)	167(34.7)	20(4.2)	

a) Tablet : vitamin mineral(calcium, iron etc.)

b) Foods : Ginseng mushroom, bamboo salt, royal jelly, health tea, deerhorn, goat or dog soup, natural food, squalene or aloe etc.

\*p<0.05 ns: not significant

차와 녹용 인삼 개소주 등 민간에서 주로 보약으로 쓰는 식품류가 35.0%이었다. 영양보충제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농업종사가족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진주(1997)의 연구에 의하면 한약 및 보약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많이 먹는다고 하며, 젊은 연령층에서 알약형태의 영양제를 우선순위로 섭취한다고 하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농촌노인의 건강보조용으로서 약제 복용은 49.1% 비복용자는 50.9%라는 결과보다 본 조사에서 좀 더 높은 영양보충제의 복용경향을 보였다(최형남 1998).

간식섭취(Table 5)에서 볼 때 비농업종사가족은 간식을 매일 먹는 비율이 높았고(22.0%), 간식을 먹지 않는 비율(29.6%)도 농업종사가족(16.6%, 24.5%)보다 높아 양극에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남도민의 간식은 가끔 하는 경우가 52%(정효숙 1998)로서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부산지역노인은 간식을 하지 않는다

는 비율이 60.4%(정주애 등 1994)로서 매우 높았다. 도시지역에서의 간식빈도는 38.7%(남원계·임재은 1996)이며 여성이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으로 볼 때 많은 간식의 섭취는 비만과 관련(김혜정 1999). 노인은 간식을 하는 경우가 75.8%(조경자·한동희 1994)로서 본 조사결과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간식섭취시간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후 휴식시간(17.9%)이나 저녁 식사 후 휴식시간에 먹는 경우(16.4%)가 비교적 높았으나 불규칙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로서 22.9%나 되었다. 농업종사가족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경우가 26.8%로서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다.

비농업 종사가족의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는 가장 높은 빈도가 과일로서 37.6%이었고 우유는 7.2%가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 종사가족은 과일의 빈도가 40.4%로 더 높았으나

**Table 5.** The use of snacks and snacking time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The use of snacks							$\chi^2$
	Total	Every day	Sometimes	None			
Non-farming	554(100)	122(22.0)	268(48.4)	164(29.6)	20.08		
Farming	1316(100)	219(16.6)	775(58.9)	322(24.5)	***		
Total	1870(100)	341(18.2)	1043(55.8)	486(26.0)			

Snacking time							$\chi^2$
	Total	Morning	After noon	After work	Night	Irregular	
Non-farming	261(100)	15(2.7)	99(17.9)	19(3.4)	91(16.4)	127(22.9)	23.38
Farming	704(100)	90(6.8)	199(15.1)	69(5.2)	173(13.2)	353(26.8)	***
Total	1235(100)	105(5.6)	298(15.9)	88(4.7)	264(14.1)	480(25.7)	

The kind of snacks										$\chi^2$
	Total	Milk	Beverage	Fruits	Noodle	Cereal	Candy	Cookie& bread	Others	
Non farming	554 (100)	40 (7.2)	25 (4.5)	208 (37.6)	37 (6.7)	25 (4.5)	27 (4.9)	24 (4.3)	168 (30.3)	
Farming	1316 (100)	59 (4.5)	78 (5.9)	531 (40.4)	151 (11.5)	64 (4.9)	48 (3.7)	48 (3.7)	337 (25.6)	26.09 **
Total	1870 (100)	99 (5.3)	103 (5.5)	739 (39.5)	188 (10.1)	89 (4.7)	75 (4.0)	72 (3.9)	505 (27.0)	

\*\*\* p<0.001 ns: not significant

우유의 섭취는 4.5%로 더 낮았고 국수류의 섭취가 11.5%로서 비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경남도민에 대한 간식 조사에서 과일 섭취가 62.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정효숙 1998), 본 결과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 농촌에서의 간식으로 과일 등 간식으로 섭취하여야 할 품목에 대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5점 척도로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비농업 종사 가족은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13.9%이며 때때로 먹는 경우는 21.7%이었다. 그러나 농업종사가족의 경우 에서 매우 가끔 먹는 비율은 10.3%로서 비농업종사가족보다 낮은 빈도를 보였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인스턴트식품 섭취는 자주 먹는 비율과 전혀 먹지 않는 비율이 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조금씩 높은 빈도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였다.

우리의 식생활 양식의 변모는 특히 복잡한 생활 속에서 간편성을 추구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식이 생활화되고 있으며 특히 식문화의 서구화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외식을 하는 동기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사교적인 목적이 있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이 아닌 만남과 휴식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서 음식점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지만 젊은 층일수록 분위기가 중요한 선택요인으로서 이 경향에 맞추어 음식점은 서비스와 위생, 밝은 분위기 등 음식의 제공과 문화적 만족으로서 점차 많

은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외식은 가정식의 형태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박주원 2000). 외식으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도 전반적으로 한식을 즐기고 있는 경향이다(김두진·임효진 1998, 홍금선 등 1999). 또 다른 요인으로서 외식의 선택은 젊은 층은 맛을 위주로 선택하고 성인층은 시간절약을 위주로 선택한다고 한다(홍금선 등 1999).

본 조사의 비농업종사가족에 대한 외식의 빈도는 다음 Table 6과 같아서,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가족이 47.6%나 되었다. 그럼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외식을 한다는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가족의 한 달에 한번 외식빈도 18.2%보다 높았으며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은 농업가족의 53.2%보다 비농업종사가족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의 노인의 외식은 주 1-2회(이영순 등 1998)라고 하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외식비의 비중은 1970년 및 1980년에는 겨우 1.9% 및 3.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9.4%, 2004년에는 47%로 대폭 늘어났기에(이동필 2000; 통계청 2005), 좀 더 외식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외식빈도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외식은 38%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61.3%가 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02) 외식의 빈도에 대하여 추정치와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The frequency of instant food and dine-out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Frequency of instant food							
	Total	Frequently	Often	Some times	Rarely	Never	$\chi^2$
Non-farming	554(100)	12(2.2)	77(13.9)	120(21.7)	194(35.0)	151(27.3)	16.4
Farming	1316(100)	14(1.1)	136(10.3)	291(22.1)	567(43.1)	308(23.4)	***
Total	1870(100)	26(1.4)	213(11.4)	411(22.0)	761(40.7)	459(24.6)	
Frequency of dine-out							
	Total	Weekly	Monthly	Per 2-3 month	Yearly	None	$\chi^2$
Non-farming	552(100)	51(9.3)	128(23.2)	64(11.6)	46( 8.3)	263(47.6)	36.2
Farming	1313(100)	52(4.0)	241(18.3)	145(11.0)	177(13.5)	698(53.2)	***
Total	1865(100)	103(5.5)	369(19.8)	209(11.2)	223(12.0)	961(51.5)	

\*\*\* p<0.001 ns: not significant

비농업종사가족의 식습관점수를 농업종사가족의 식습관점수와 비교한 그림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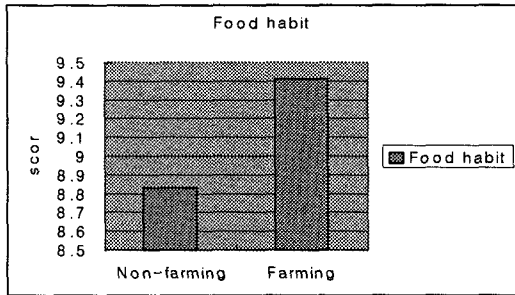


Figure 1. Food habit score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t=25.34\*\*\*)

비농업종사가족의 식습관 점수는  $8.83 \pm 0.08$ 이었다. 이는 방법에 제시한 점수화에 따라 얻어진 수치로서 식습관이 농업가족의  $9.41 \pm 0.04$ 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농촌지역여성의 영양섭취는 영양불량에 가까운 정도의 적은 양과 불균형 섭취를 들고 있는 점(왕수정·이나영 2003)과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할 때 식품의 생산자 위치에서 식습관 점수에서도 우수함을 보이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식생활을 매우 빈약함을 나타내었다. 식습관은 또한 자가 건강평가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젊을수록 미혼이고 학력이 높으면 좋지 않은 식습관을 보이는 점(남원계 1995)을 본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식습관은 건강문제와 연결되어 고혈압 변비 위장질환 당뇨등과 관련성이 높음(김건희·노승욱 1996; 조경자·한동희 1994; 원향례 1995)과 또한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오장균 2000; 강신일 1991; 최영애 2003; 문혜경 2003; 조유향·박윤창 2003; 이종현·전은정 1996)을 말하고 있어 더욱 건강연관성을 볼 때 식습관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남성에서도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에서 식습관에 더 신경을 쓰고 사무직이 가장 나쁜 식습관을 가짐(신영자·박금순 1995)을 말하여 연령대의 차이는 건강관심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식습관은 표준체중(남원계·임재은 1996)을 유지하고, 또 건강평가와 질병유무에서 나은 상태(남원계·임재은 1996; 원향례 1995)를 가져온다. 도시지역에서의 노인도 독거노인의 경우 식사의 불규칙 등 식습관이 나쁨을 보여주고 있으며(정미숙·강금지 1996), 노인의 용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식습관을 나타내고 있음(이영순 등 1998)은 식습관이 경제적 여유와 관련성이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3. 비농업종사가족의 식품구매에 대한 의식과 전래식품 이용

비농업종사가족의 식품구매장소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다음 Table 7에 나타내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은 작은 슈퍼에서 가장 높은 빈도 41.9%로 구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국제적으로 UR WTO등의 농산물 협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되는 식품 중에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되는 품목도 있지만 대다수 품목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은 낮으나 품질과 처리과정의 비위생 등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등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조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농업종사 가족의 태도를 보면 Table 7과 같다. 절대적으로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경우는 17.7%이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 것(22.2%)이나 같은 값이면 우리 것(38.2%)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농산물에 대한 보수경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품질을 우선으로 보아 구매결정을 하는 경우(15.2%)와 값싼 것을 우선 구매(6.7%)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비하여 농업종사가족은 꼭 우리 것만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28.2%로 높지만 같은 가격이면 우리 것을 구매하겠다는 비율도 40.9%이어서 비농업 종사 가족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대비 품



**Table 7.** Food purchase place and The attitude of imported food buying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Food purchasing place								
	Total	Tradi- -tional market	Store in neighbor	Small super market	Depart- -ment store	Selling in vehicle	Others	$\chi^2$
Non-farming	554(100)	185(33.4)	42(7.6)	232(41.9)	12(2.2)	70(12.6)	13(2.4)	29.61
Farming	1316(100)	557(42.3)	50(3.8)	510(38.8)	15(1.1)	171(13.0)	13(1.0)	***
Total	1870(100)	742(39.7)	92(4.9)	742(39.7)	27(1.4)	241(12.9)	26(1.4)	

The attitude of imported food buying							
	Total	Korean product if same price	Korean product if possible	Korean product without reserve	Quality	Price	$\chi^2$
Non-farming	554(100)	212(38.2)	123(22.2)	98(17.7)	84(15.2)	37(6.7)	60.5
Farming	1314(100)	537(40.9)	276(21.0)	371(28.2)	91( 6.9)	39(3.0)	***
Total	1858(100)	748(40.2)	396(21.3)	464(25.0)	174( 9.4)	76(4.1)	

\*\*\* p<0.001 \*\*p<0.01 \*p<0.05 ns: not significant

질을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매 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와 농촌이 모두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양상과 같은 경향이 있다(강이주 1995). 일부 도시지역의 조사를 보면 주부와 요식업체에서 꼭 국내산을 구입하겠다는 의지(요식업체 31% 주부 53.1%)가 높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이중희 등 1994). 농산물 수입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조건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급식 영양사들도 학교급식 식재료 선택에 있어서 60.3%가 보편화된 수입산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하고 있어(류미진 2003) 가격을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서는 수입농산물이 점차 확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음식에 대한 사용 빈도와 겨울 김장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전통음식이용은 때대로 하는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30.1%나 되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과 비교하면, 때대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43.6%로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이며 전혀하지 않는다는 비

율도 12.6%로서 비농가족보다 낮아 좀 더 높은 빈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자주 만들어 사용하는 가족은 1.6%에 불과하여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경기지역의 전통음식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을 보면 맛이 다양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음식에 대한 실천 계승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장은주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한 역 1996). 중년주부 가정에서도 대부분 반상과 김치 장류 등 전통음식으로 식생활의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화전 18.9%와 축절편 43.8% 등 시식 절식의 형태는 낮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어(천중희·강업순 1998) 일상 사용되는 전통음식이 아닌 특수 형태의 전통음식은 사용빈도가 낮음을 보여 농촌지역 가족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추정한다. 이는 아마도 전통음식 중 우수한 종류인 신선로 떡 한과 구절판 등 특수한 음식을 생각하는 경향이어서 그 만드는 방법이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이효지 등 1996) 자주 만들어 먹지 못하지만, 전통음식이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선 1998).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중년주부의 사계절 가

**Table 8.** The preparation of special traditional food and Gimjang Kimchi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Special traditional food								
	Total	Frequently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No answer	$\chi^2$
Non-farming	554 (100)	9 (1.6)	52 (9.4)	172 (31.1)	153 (27.6)	167 (30.1)	1 (0.2)	97.37 ***
Farming	1316 (100)	21 (1.6)	217 (16.5)	574 (43.6)	334 (25.4)	166 (12.6)	4 (0.3)	
Total	1870 (100)	30 (1.6)	269 (14.4)	746 (39.9)	487 (26.0)	333 (17.8)	5 (0.3)	

Gimjang Kimchi preparation				
	Total	Yes	No	$\chi^2$
Non-farming	554(100)	454(82.0)	100(18.0)	158.0 ***
Farming	1316(100)	1288(97.9)	28( 2.1)	
Total	1870(100)	1742(93.2)	28( 6.8)	

\*\*\* p<0.001

장 많이 사용하는 식단의 형태는 밥·국·김치·한 가지 반찬의 형태가 식생활의 중심에 있다(최정숙 2003). 주부들의 김치소비는 하루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주부가 97%, 매 끼 마다 이용하는 주부가 87%로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발효식품임(구난숙 1997)을 말하면서도, 김장김치의 제조는 비농업가족에서 82%만이 담고 있었으며 농업종사가족은 97.9%로서 대부분 김장을 담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4. 비농업종사가족의 일상소비식품의 생산과 제조 현황**

농촌가정에서는 많은 식품의 생산하고 저장하며 이를 다른 가족에게 분배하는 삶이 이어져 오고 있다(이현옥·이숙영 1992).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에도 간단한 텃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로 생산하여 사용하는 식품의 종류와 생산하여 이용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다양한 식품 섭취 기회가 도시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농촌주부의 경우 곡류, 육류, 채소, 과일은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는 비율이 도시에 비하여 높음을 보이고 있다(김진양·김선효 2005). 일상 소비식품을 재배하는 식품 3종(고추, 배추, 참깨)과 키우거나 만들어서

먹는 3종(두부, 콩나물, 계란)으로 구분하여 생산하여 쓰는 가족의 비율을 알아보면 다음 Table 9와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비농업종사 가족에서 일상식품을 전부를 생산하는 가족을 보면, 고추 13.3% 배추 16.2% 참깨 6.2%의 비율을 보여 텃밭이용 농사는 낮은 비율이지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종사가족의 고추 75.8% 배추 76.8% 참깨 61.1%를 전부 재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발코니를 이용한 식품의 재배를 통하여 재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채소의 재배는 더 권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콩나물과 두부 및 계란의 경우(Table 10)는 비농업종사가족에서 전부 만들어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콩나물은 0.7%, 두부는 0.2%에 불과하며 계란은 7.2%의 가족만이 전부 닭을 키워 이용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 비농업종사가족의 식품 조달은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종사가족과 비교할 때 콩나물 9.7% 두부 4.6% 및 계란 5.1%를 나타내어 콩나물과 두부는 비농업가족보다 좀 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계란은 오히려 더 낮은

**Table 9.** The cultivation of pepper, Korean cabbage and sesame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b>Cultivation of pepper</b>					
Non-farming	550(100)	73(13.3)	79(14.4)	398(72.3)	743.2
Farming	1314(100)	996(75.8)	161(12.3)	157(11.9)	***
Total	1854(100)	1062(57.3)	240(12.9)	552(29.8)	
<b>Cultivation of Korean cabbage</b>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49(100)	89(16.2)	80(14.6)	380(69.2)	726.34
Farming	1314(100)	1010(76.8)	166(12.6)	138(10.6)	***
Total	1863(100)	1099(58.8)	246(13.2)	518(27.7)	
<b>Cultivation of sesame</b>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49(100)	34( 6.2)	39( 7.1)	476(86.7)	573.61
Farming	1309(100)	800(61.1)	153(11.7)	356(27.2)	***
Total	1858(100)	834(44.9)	192(10.3)	832(44.8)	

\*\*\* p<0.001

비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농업이 점차 기업농으로 전환되어 집에서 소비하는 간단한 농산물의 재배나 가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또한 콩의 생산도 적고 또 나물로 키우는데 시간적 노력이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콩나물 두부 계란의 경우 구매하여 소비하는 경향이어서 단백질 식품의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농촌에서의 구매력이 낮아 구매하여 섭취한다는 것은 섭취를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영양소의 균형 섭취에 어려움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종실류인 참깨의 경우도 반 정도만 생산하고 구매한다고 하여 소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아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가족이 소비하는 일상 식품의 생산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식생활에서의 식품의 저장은 식생활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였기에 다양한 식품들을 절기에 맞추어 저장하여 농가월령가 등에서 나타나는 저장식품은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바쁜 현대의 생활에서는 특별한 준

비가 필요하다든지 저장법이 복잡한 것은 모두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저장법과 전통적으로 주식에 버금가는 개념으로 담그어 오던 발효식품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널리 실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의 발효저장식품으로서 된장의 소비는 아직도 67.2%가 주 1-2회 소비하며 55.3%는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김영숙·염동민 1999) 김치는 97%가 매일 사용(구난숙 1997)하고 있다. 우리식생활의 기둥으로서 저장 발효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널리 먹고 이용하는 장류와 김치류에 대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 종사가족의 제조 상태를 보면 다음 Table 11과 같다.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된장 생산은 57.8%, 고추장 56.1% 간장 53.6%를 보여 장류의 생산도 약 반 정도의 가족이 만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된장 93.6% 고추장 92.9% 간장 87.9%로서 대부분 직접 담가서 사용하는 점과 상당히 달랐다. 그럼에도 농촌지역에서의 각종 장류의 구매 소비현황은 낮은 편이지만 도시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서 간장은 71.5%, 고추장은 27.1% 된장은

**Table 10.** The production of soybean sprout, tofu and egg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Soybean sprout produce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49(100)	4(0.7)	16( 2.9)	529(96.4)	110.27
Farming	1296(100)	126(9.7)	184(14.2)	986(76.1)	***
Total	1845(100)	130(7.0)	200(10.9)	1515(82.1)	
Tofu produce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50(100)	1(0.2)	8 (1.4)	541(97.7)	77.65
Farming	1299(100)	61(4.6)	145(11.0)	1093(83.1)	***
Total	1849(100)	62(3.3)	153( 8.2)	1634(87.4)	
Eggs production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50(100)	72(7.2)	49(4.9)	882(87.9)	5.11
Farming	1301(100)	43(5.1)	31(3.7)	765(91.2)	ns
Total	1851(100)	115(6.2)	80(4.3)	1656(88.6)	

\*\*\* p<0.001 \*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11.** Jang and kimchi product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Doenjang product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00(100)	318(57.8)	52(9.5)	180(32.7)	358.68
Farming	1313(100)	1229(93.6)	29(2.2)	55( 4.2)	***
Total	1853(100)	1538(83.0)	80(4.3)	235(12.7)	
Kochujang product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49(100)	308(56.1)	50(9.1)	191(34.8)	380.88
Farming	1314(100)	1221(92.9)	42(3.2)	51( 3.9)	***
Total	1853(100)	1521(82.1)	91(4.9)	241(13.0)	
Kanjang product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48(100)	293(53.6)	50(9.0)	205(37.4)	319.56
Farming	1311(100)	1153(87.9)	81(6.2)	77( 5.9)	***
Total	1859(100)	1446(77.9)	131(7.0)	282(15.1)	
Kimchi product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51(100)	429(77.9)	36(6.5)	86(15.6)	215.6
Farming	1315(100)	1284(97.7)	20(1.5)	11( 0.8)	***
Total	1866(100)	1713(91.8)	56(3.0)	97( 5.2)	
Jangajji product					
	Total	All	Partially	None	$\chi^2$
Non-farming	530(100)	197(37.2)	77(14.5)	256(48.3)	178.18
Farming	1273(100)	849(66.7)	188(14.8)	236(18.5)	***
Total	1394(100)	491(27.4)	265(14.8)	1037(57.8)	

\*\*\* p<0.001 \*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12.** Home made preserved product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Total	Jam	Powder <sup>a)</sup>	Bottled	Alcohol	Others
Non-farming	204	87(15.7)	27( 4.9)	18(3.3)	53( 9.6)	19(3.4)
Farming	673	206(15.7)	161(12.2)	42(3.2)	186(14.1)	78(5.9)
$\chi^2$		0.00ns	23.4***	0.00ns	7.3**	1.7ns
Total	877	293(15.7)	188(10.1)	60(3.2)	239(12.8)	97(6.2)

\*\*\* p<0.001 \*\* p<0.01 ns: not significant

Powder<sup>a)</sup> means rice powder, sticky rice powder, acorn powder, etc.

10.4%가 구매하여 섭취하고 있는 결과보다는 담가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구난숙 1997).

김치와 장아찌의 경우에도 비농업종사가족은 김치 77.9% 장아찌 37.2%가 담가서 소비하는 비율로 나타나, 농업종사가족의 97.7%와 66.7%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로 담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아찌는 장류와 함께 농촌에서 저장하여 소비하기 좋은 식품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장아찌로 저장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지역 소비자들의 김치와 장아찌의 구매소비 현황은 장아찌는 20.1%, 김치는 3.8%로서 많지는 않아 농촌지역 비농업종사가족의 생산보다 많았다(구난숙 1997)

장류와 김치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의 생산 현황을 보면 다음 Table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찜을 가장 많이 만들어 15.7%의 가족이 찜을 만들었다. 그 다음이 술을 만드는데 12.8%가 만들었으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 자주 이용되는 형태로 만들어 두고 쓰는 분말(도토리분말, 쌀가루, 참쌀가루, 들깨가루 등)도 10.1%이었다. 비농업종사 가족은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농업종

사가족에서 분말과 술을 유의적으로 더 만드는 경향이였다.

### 5. 비농업종사 가족의 건강행위

건강행위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되는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함으로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건강위험행위와 그 행위로 인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기여행위로 말한다. 건강위험행위로서는 흡연, 음주, 식습관, 수면이 이에 해당된다(이정렬·박신애 1996). 건강행위의 실천은 건강관심이 높을 수록 높음을 말하는 바(이순영 등 1995), 농촌지역에서도 건강관심도는 건강실천행위와 연결되고 적절한 건강실천행위는 건강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전선영 2002).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고(전선영 2002), 실제 건강검진의 빈도도 높아서 농촌노인의 경우 지난 일 년 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60%(최형남 1998)이고 40%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의 건강검진빈도를 보면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35%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37%나 되었다. 이에 비하여 농

**Table 13.** Frequency of health examination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Total	Twice a year	Once 1-2 years	Once 3-4 years	Once 5-6 years	Never	$\chi^2$
Non-farming	548(100)	80(14.6)	192(35.0)	48(8.8)	25(4.6)	203(37.0)	34.72
Farming	1296(100)	155(12.0)	626(48.3)	122(9.4)	29(2.2)	364(28.1)	***
Total	1844(100)	235(12.7)	818(44.4)	170(9.2)	54(2.9)	567(30.8)	

\*\*\* p<0.001

업 종사 가족은 건강검진을 좀 더 하고 있어 해본적이 없는 비율이 28.1%로 낮고 주로 1-2년에 한번 (48.3%) 하고 있었다(p<0.001).

목욕은 피부를 청결케 하고 탄력을 회복시키며 통증완화와 심신이완의 효과가 있는데 이는 피부의 말초신경과 피하조직의 자극으로 순환상태의 증진과 관절의 움직임 및 근육긴장, 호흡 등에 자극으로서 편안감과 자아감의 증진을 이룰 수 있어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일 주 한 번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농업종사 가족의 목욕 시설을 보면, Table 14과 같다. 더운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은 72.3%이며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도 20.1%이었다. 농업종사가족은 좀 더 나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더운물을 쓸 수 있는 시설 보유 가족이 79%이며 목욕시설이 없는 가족은 11.8%로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주로 하는 목욕 장소에서 보면 비농업 종사가족은 공중탕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남편은 41% 부인은 59.2%를 보였고 집에서 목욕을 하는 빈도는 남편 28% 부인 30%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공중탕이용의 빈도가 남편 37.6% 부인 49.9%로 약간 낮은 빈도를 보였고 대신 집에서 목욕하는 비율이 높아 남편 49.5% 부인 44.9%를 나타내었

다. 비농업종사 가족의 목욕시설부족은 바로 경제적 상황과 양의 상관을 말할 수 있으며 목욕의 형태에서 욕조목욕을 하는 목적이 피로회복과 위생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욕조목욕을 하는 빈도가 높음(최희정·이은옥 2002)을 볼 때, 욕조목욕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활습관 중에서 건강위험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흡연과 음주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망과 관련 있는 질병의 이환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음주와 흡연 및 운동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김공현 1999; 소희영 등 1998). 노인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위해 요인 중 첫 번째로 흡연과 음주(오진주 1997)를 꼽고 있음으로 보아 흡연, 음주의 해로움에 대한 의식은 있다고 본다.

음주는 노인의 정신적 장애로서 자아 존중감을 감소시키고(안황란 등 1999), 음주와 대퇴골 골절과는 연관성이 있어 약간의 음주는 골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주 등 1999).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직접 사망률은 1995년도

Table 14. Bath room facility and bath place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Bath room facility					
	Total	Hot & cold water	Cold water only	No-bath room	$\chi^2$
Non-farming	551(100)	398(72.3)	42(7.6)	111(20.1)	29.6
Farming	1316(100)	1040(79.0)	121(9.2)	155(11.8)	****
Total	1867(100)	1438(77.0)	163(8.7)	266(14.3)	
Bath place of husband					
	Total	In house	Public bath	No answer	$\chi^2$
Non-farming	554(100)	155(28.0)	227(41.0)	172(31.0)	112.98
Farming	1316(100)	651(49.5)	495(37.6)	170(12.9)	***
Total	1870(100)	806(43.1)	722(38.6)	342(18.3)	
Bath place of wife					
	Total	In house	Public bath	No answer	$\chi^2$
Non-farming	554(100)	166(30.0)	328(59.2)	60(10.8)	46.16
Farming	1316(100)	591(44.9)	657(49.9)	68( 5.2)	***
Total	1870(100)	757(40.5)	985(52.7)	128( 6.8)	

\*\*\* p<0.001 \*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15.** Alcohol drink frequency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Husband								$\chi^2$
Total	Daily	4-5 in a week	2-3 in a week	Weekly	Seldom	None		
Non-farming	382(100)	51(13.4)	30( 7.8)	90(23.6)	79(20.7)	13(3.4)	119(31.1)	104.96
Farming	1143(100)	223(19.5)	115(10.1)	218(19.2)	163(14.4)	27(2.4)	397(34.4)	***
Total	1525(100)	274(18.0)	145( 9.5)	308(20.2)	242(15.9)	40(2.6)	516(33.8)	

Wife								$\chi^2$
Total	Daily	4-5 in a week	2-3 in a week	Weekly	Seldom	None		
Non-farming	503(100)	8(1.6)	11(2.2)	31(6.2)	52(10.3)	27(5.4)	374(74.3)	33.67
Farming	1249(100)	13(1.0)	10(0.8)	36(2.9)	124( 9.9)	50(4.1)	1016(81.3)	***
Total	1752(100)	21(1.2)	21(1.2)	67(3.8)	176(10.1)	77(4.4)	1390(79.3)	

\*\*\* p<0.001

전체 12.4%이며 남자는 16%, 여자는 7.6%이었다 (천성수 1998). 비농업종사 가족의 음주 상태를 다음 Table 15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 비농업 종사가족에서 일주일에 2-3번 음주하는 빈도가 가장 높아서 23.6%를 보였고 매주 한 번 정도는 20.7%를 나타내었으며 전혀 먹지 않는 경우는 31.1%이었다. 농업종사가족의 경우 매일 먹는 비율과 주 2-3회 비율이 높아 각각 19.5%를 보였으나 전혀 먹지 않는 비율이 34.4%로 많이 마시는 경우와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양극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부인의 음주상태를 보면, 비농업종사가족에서 주 1회 정도 마시는 비율이 10.3%이고 74.3%는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주 1회 9.9%, 마시지 않는 경우는 81.3%로서 비농업종사가족의 부인이 좀 더 음주를 한다고 볼 수 있었다. 부산지역 노인의 음주율은 남자 38.0%, 여자 17.1%(정주애 등 1994)로 나타나 본 결과보다 남자 음주율은 낮게 여자의 경우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서 심혈관질환 양성률을 높이고(김희균 등 1998) 악성 신생물, 호흡계 질환 이외에도 저체중아와 영아사망 등의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김공현 1999), 농촌노인의 사망률이 음주 흡연으로 2.28배, 2.59배 높아진다

고 알려졌다(박찬향 2002). 흡연은 혈중 HDL - cholesterol의 농도를 낮추고(백영한·최규돈 1995),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을 높여(김영옥 등 1999) 상대적으로 동맥경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농업종사 가족의 흡연 상태를 보면 남편의 경우 흡연중인 경우 41.7%이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22.9%이었고 이전에 흡연을 하였다고 지금은 하지 않는 4.3%를 합하면 27.2%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는 의미의 응답을 하지 않는 빈도가 31.1%로 높아, 무응답을 빼고 다시 환산하여 보면, 흡연 남편은 60.5%이며 흡연하지 않는 경우는 39.5%로 볼 수 있다. 농업종사가족의 경우는 흡연중인 경우 50.1%, 흡연하지 않는 경우는 이전 흡연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7.1%를 합하여 37.3%이었다. 이를 무응답을 제외하고 다시 환산하여 보면, 흡연 남편은 57.3%이며 비흡연 남편은 42.7%이어서 비농업종사가족의 남편이 더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를 볼 때 비농업종사가족에서는 흡연부인이 3.3%이며 흡연하지 않는 부인은 87%이었다. 농업종사가족에서는 부인의 흡연율이 더 낮아서 2.8%만 해당되었다. 흡연하지 않는 부인은 92.3%이었다. 노인은 흡연률 36.6%(장정희 2000), 부산지역 노인 남자 흡연

Table 16. Smoking status of non-farming family compared with farming family

n(%)

Husband						
	Total	Smoker	Ex- smoker	Non- smoker	No answer	$\chi^2$
Non-farming	554(100)	231(41.7)	24(4.3)	127(22.9)	172(31.1)	92.19
Farming	1316(100)	659(50.1)	94(7.1)	398(30.2)	165(12.6)	***
Total	1870(100)	890(47.6)	118(6.3)	525(28.1)	337(18.0)	
Wife						
	Total	Smoker	Ex- smoker	Non- smoker	No answer	$\chi^2$
Non-farming	554(100)	18(3.3)	4(0.7)	482(87.0)	50(9.0)	16.22
Farming	1316(100)	37(2.8)	5(0.4)	1215(92.3)	59(4.5)	**
Total	1870(100)	55(2.9)	9(0.5)	1697(90.8)	109(5.8)	

\*\*\* p&lt;0.001 \*\* p&lt;0.01

56.7%, 여자 27.1%(정주애 등 1994)를 보여 본 조사결과 비농업종사가족의 남자 흡연을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였으나, 충주지역 농민에서는 남자 흡연 61.5%, 여자 2.9%이며(장성훈 등 1998). 충남지역에서도 흡연 남자 69%, 여자 7.1%(송주영 등 1998)를 보여 농촌지역의 많은 인구층에서 흡연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농촌지역에 대하여 건강 인식과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다.

#### IV. 요약 및 결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촌거주 비농업 종사 가족에 대하여 식습관과 건강행위를 알아보고자 우리나라 전국 농촌지역 전국 88개 시군에서 1870명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 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종사가족을 구분하여 식생활과 건강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 종사 가족은 전 대상가족 중 29.6%이었고 외곽을 이룬 가족 구성이 38%로서 농업종사가족의 15.9%에 비교할 때 높았다. 가족수는 2.86명이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66.8세이며 부인의 연령은 58.5세로서 농업종사가족에 보다 연령이 높았다. 또한 주부는 가사일에 전념하는 비율이 54% 높고 부업을 하는 주부는 25.5%에 불과하여 농업종사가족의 농업참여비율이 79.3%임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비농업 종사가족의 아침식사 섭취빈도를 보면 83.2%가 꼭 먹는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꼭 섭취하지만 농업종사가족의 95.1%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반찬수는 3-4종(56%) 또는 5-6종(24.9%)을 섭취하지만 1-2종(17.7%)인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서 균형식을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영양보충제 섭취는 27.6%이며 과거에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6%이었다. 그러나 전혀 섭취하지 않은 경우도 47.3%였다. 농업종사가족에서는 과거에 섭취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3.4%로 높아 전혀 섭취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40.8%로 비농업종사가족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였다. 영양보충제의 종류는 주로 비타민 등 알약의 형태를 60.1%, 식품류가 35.0%이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은 간식을 매일 먹는 비율이 높았고(22.0%), 간식을 먹지 않는 비율(29.6%)도 농업종사가족(16.6%, 24.5%)보다 높아 양극에 해당되었다.

비농업 종사가족의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는 가장 높은 빈도가 과일로서 37.6%이었고 우유는 7.2%가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과일의 빈도가 40.4%로 더 높았으나 우유의 섭취는 4.5%로 더 낮았다.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비농업 종사 가족은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13.9%이며 때때로 먹는 경우는 21.7%이며 이는 농업종사가족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외식 빈도는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가족이 47.6%나 되었다. 그럼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외식을 한다는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종사 가족보다 높았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식습관 점수는  $8.83 \pm 0.08$ 이었다. 이는 방법에 제시한 점수화에 따라 얻어진 수치로서 식습관이 농업가족의  $9.41 \pm 0.04$ 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다. 비농업종사가족은 작은 슈퍼에서 가장 높은 빈도 41.9%로 구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농업종사 가족의 태도를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경우는 17.7%이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 것(22.2%)이나 같은 값이면 우리 것(38.2%)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농산물에 대한 보수경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전통음식이용은 때대로 하는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30.1%나 되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종사가족보다 낮은 빈도이었다.

비농업종사 가족에서 일상식품을 전부를 생산하는 가족을 보면, 고추 13.3% 배추 16.2% 참깨 6.2%의 비율을 보여 농업종사가족의 고추 75.8% 배추 76.8% 참깨 61.1%를 전부 재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비농업종사가족의 전부 만들어 사용하는 콩나물은 0.7%, 두부는 0.2%에 불과하며 계란은 7.2%를 가족 내에서 생산조달하며 농업종사가족과 비교할 때 콩나물 9.7% 두부 4.6% 및 계란 5.1%를 나타내어 콩나물과 두부는 비농업가족보다 좀 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계란은 오히려 더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된장 생산은 57.8%, 고추장 56.1% 간장 53.6%를 보여 장류의 생산도 약 반 정도의 가족이 만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된장 93.6% 고추장 92.9% 간장 87.9%로서 대부분 직접 담가서 사용하는 점과 상당히 달랐다.

김치와 장아찌의 경우에도 비농업종사가족은 김치 77.9% 장아찌 37.2%가 담가서 소비하는 비율로 나타나, 농업종사가족의 97.7%와 66.7%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로 담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다른 가공식품의 생산현황을 보면 잼을 가장 많이 만들어 15.7%의 가족이 만들어 사용하였고, 술은 12.8%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분말은 10.1%의 가족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비농업종사 가족은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농업종사가족에서 분말과 술을 유의적으로 더 만드는 경향이었다.

건강검진빈도를 보면 비농업종사가족의 경우 35%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해 본적이 없는 경우도 37%나 되어 농업 종사 가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 $p < 0.001$ ). 비농업종사 가족의 목욕시설을 보면, 더운물과 찬물을 모두 쓸 수 있는 시설은 72.3%이며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도 20.1%이었다. 농업종사가족은 좀 더 나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더운물을 쓸 수 있는 시설 보유 가족이 79%이며 목욕시설이 없는 가족은 11.8%로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비농업종사 가족의 음주 상태는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음주하는 빈도가 가장 높아서 23.6%를 보였고 매주 한 번 정도는 20.7%를 나타내었으며 전혀 먹지 않는 경우는 31.1%이었다. 농업종사가족의 경우 매일 먹는 비율과 주 2-3회 비율이 높아 각각 19.5%를 보였으나 전혀 먹지 않는 비율이 34.4%로 많이 마시는 경우와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양극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부인의 음주상태를 보면, 비농업종사가족에서 주 1회 정도 마시는 비율이 10.3%이고 74.3%는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업종사가족은 주 1회 9.9%, 마시지 않는 경우는 81.3%로서 비농업종사가족의 부인이 좀 더 음주를 한다고 볼 수 있었다. 비농업종사 가족의 흡연상태를 보면 흡연 남편은 60.5%이며 흡연하지 않는 경우는 39.5%로 볼 수 있다. 농업종사가족의 경우는 흡연 남편은 57.3%이며 비흡연 남편은 42.7%이어서 비농업종사가족의 남편이 더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를

볼 때 비농업종사가족에서는 흡연부인이 3.3%이며 흡연하지 않는 부인은 87%이었다. 농업종사가족에서는 부인의 흡연율이 더 낮아서 2.8%만 해당되었다. 흡연하지 않는 부인은 92.3%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농업종사가족에 대한 식생활환경이 농업종사가족보다 떨어지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에 도시 빈민층에 대하여 수혜하는 혜택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 좀 더 나은 식생활과 건강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강신일(1991)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혈액의 생화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이주(1995)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4-122.  
 구난숙(1997) 시판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대전지역 소비자들의 반응 및 구입현황.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 388-395.  
 김건희·노승욱(1996) 한국인 식습관과 건강문제와의 관계연구. 덕성여대 논문집27, 547-558.  
 김공현(1999) 흡연, 음주, 그리고 건강. 인제의학 20(1)suppl., 133-142.  
 김두진·임효진(1998) 부산지역의 의식 실태조사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식점과 음식점의 기호도.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1(2), 200-211.  
 김미경(1990) 영양보충제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성용(2004)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4), 97-115.  
 김영숙·염동민(1999) 부산, 양산, 울산지역의 발효식품소비현황 11 장류.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4), 350-357.  
 김영옥·이순영·김선우(1999) 남성의 흡연, 음주 및 운동습관과 혈중지질 수준간의 연관성. 한국지질학회지 9(4), 421-428.  
 김정원·김초강(1997) 일부 노인의 건강행동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1), 73-95.  
 김지은(2004) 농촌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개선방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양·김선효(2005) 일부 벽지 농촌 가정 주부의 식생활 관리 실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2), 131-143.

김해정(1999) 비만과 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원광의과학 15(2), 187-192.  
 김희균·강인숙·황은주·배형준(1998) 운동, 흡연, 음주 습관이 운동부하 검사 성적에 미치는 영향. 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 30(3), 324-333.  
 남원계(1995) 도시지역주민의 식습관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남원계·임재은(1996) 도시지역 주민의 식습관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2), 69-96.  
 류미진(2003)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관리 실태 및 식재료 사용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생활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혜경(2003)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인식에 따른 검진효과와 만족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주·정귀옥·구혜원·배종면(1999) 노인인구에서 음주와 근위대퇴골 골절간의 연관성에 관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 한국역학회지 21(1), 93-103.  
 박선옥(1992)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정책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선(1998) 한산도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에 관한 인지도. 한국조리과학회지 14(5), 516-534.  
 박주원(2000) 한국인의 연령·성별에 따른 식사양상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향(2002) 농촌 노인 추적조사에서 생활습관이 총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2)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영·이미라·정미숙(1998) 흡연, 음주, 운동과 건강생활양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221-235.  
 송주영·이연경·이석구·이태용·조영채·이동배(1998) 충남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농부중에 관한 조사. 한국농촌학회지 23(1), 3-14.  
 신영자·박금순(1995) 도시지역 직장남성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5), 435-442.  
 안황란·배행자·김은심(1999) C시 음주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음주상태와의 상관관계. 정산간호학회지 8(2), 478-492.  
 오장균(2000) 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생활습관 및 건강수준간의 관계. 대한산업의학회지 12(1), 26-40.  
 오진주(1997) 우리나라 일반성인의 연령별 건강행위 및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2), 286-296.  
 왕수정·이나영(2003) 농촌지역 중·노년기여성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량 비교연구.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자연과학 14(1), 149-160.  
 원향례(1995) 식습관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상지대학교 논문집 16권, 273-280.

- 이동필(2001)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농촌생활연구소농촌생활과학 22(4), 42-48.
- 이순영·손명세·남정모(1995) 한국인의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및 건강수준간의 구조분석. 예방의학회지 28(1), 187-205.
- 이시연(2004) 농촌단독가구 노인부양에 관한 사례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구성자·한명주(1998)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식습관과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5), 475-486.
- 이일하(1993) 한국인의 식생활 양상의 변화가 건강 및 질병상태에 미친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4), 359-372.
- 이장영(2002)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비교. 농촌사회 12(1), 89-110.
- 이정렬·박신애(1996) 역학과 건강증진. 서울 수문사 347-358.
- 이중현·전은정(1996) 건강과 생활양식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2), 57-67.
- 이중희·오명숙·손숙미(1994) 부천지역의 주부와 요식업소의 수입농산물 사용실태 조사.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4(1), 35-44.
- 이현옥·이숙영(1992) 농촌가정의 식생활행동의 분석.-경기도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가정문화논총 6권, 41-54.
- 이효지·이윤경·장은주(1996)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2), 179-206.
- 장성훈·이건세·이원진(1998) 충주지역 전업 농민의 농부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학회지 23(1), 15-26.
- 장은주(1995)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 지식, 식생활 행동, 기호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장정희(2000) 농촌 노인들의 보건의료이용 양상 및 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 정미숙·강금지(1996) 도시남자 노인의 건강과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식습관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 455-463.
- 정영일·이경미(2000) 한국 식료소비패턴 변화의 분석(1975-1997)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논집 39(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97-127.
- 정은옥(2005) 농촌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 경험.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애·김공현·김병성(1994) 부산지역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에 관한연구. 인제의학 15(2), 259-272.
- 정효숙(1998) 경남도민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도에 관한 연구. 21세기경남도민의 삶의 질 3권, 559-580.
- 전경숙(2001) 농촌노인의 만성질환 실태와 보건·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구 익산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전선영(2002) 도시와 농촌지역의 건강관심도, 건강행위 및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련성 연구. 원광대학교 한의과전문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 조경자·한동희(1994) 노인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부산시 남녀노인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논문집 15(2), 57-74.
- 조원식(1999) 農村單獨家口老人의 社會福祉서비스 慾求 調査 研究. 全州大學校석사학위논문.
- 조유향·박윤창(2003) 일부지역 재가노인의 연령,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한국노년학 23(2), 141-153.
- 천성수(1998) 음주로 인한 평균수명 손실량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4(1), 153-166.
- 천종희·강업순(1998) 중년주부 가정의 전통음식 이용에 관한 연구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5), 461-474.
- 최영애(2003) 공동 어시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상태분석.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2003) 중년 주부의 연중 음식 섭취 및 식단 패턴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5), 764-778.
- 최형님(1998)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욕구에 관한 연구 -남원시 노인을 대상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이은옥(2002) 목욕행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19-528.
- 통계청(2005) 가계소득, 지출/전국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 하영선(2004) 농촌지역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익(1996) 전통음식의 현대적 인식과 재창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문학 석사학위논문.
- 홍금선·백수진·김향숙(1999) 시판되는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 및 기호도의 세대간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8(2), 373-385.